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013 Spring

Vol. **76**

희망미소

www.kclf.org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새 생명이 싹트는 따뜻한 봄이 바짝 다가 왔습니다만, 우리 곁에는 봄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좀 더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열심히 치료 받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와 그 가족 분들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이라는 모토로 사회적 책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2008년부터 헌혈 등과 같은 생명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펼쳐놓은 생명나눔 자리에 정성이 쌓이고 쌓여, 헌혈증 2만 2천 장과 치료비 5억 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소아암 어린이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후원되었습니다. 생명나눔운동에는 우리 공사 임직원부터 고속도로 관련 업무 종사자, 고속도로 이용 고객 등 아주 다양한 분이 참여하였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정성이 따뜻한 온기가 되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임직원을 대표해 약속합니다. 아울러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애쓰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관계자와 우리 공사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 주는 직원과 고객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겐 크나큰 선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철들기 전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저희는 결국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헤어질 때 재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현이와 같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거 같았으니까요. 아빠의 자리를 비워둔 채 지현이와 저의 홀로서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힘들까봐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자라주는 딸이 있었으니까요. 직장 때문에 지현이는 외할머니집에서 생활했기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맘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런 딸과 함께할 시간이 주고 싶었나 봅니다.

2009년 11월 초, 미열이 떨어지지 않자 학교에서 신종플루가 유행하니, 검사를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워낙 건강한 아이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피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고, 각종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세로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긴 주사 바늘로 세포를 떼어내서 많이 아팠을 텐데, 지현이는 참을만 하다면서 오히려 같이 간 저와 친정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일주일을 보내고 검사결과를 보러 가는 발걸음이 왜 그리도 무거웠던지... 2009년 12월 7일, 지현이는 비호지킨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말에 한 번 터진 눈물은 심 없이 흘렸습니다. 실밥을 꿰고 돌아온 지현이가 "엄마 울었어?" 묻는데, "아니 눈이 좀 아파서..."라고 말하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데 엄마보다 더 씩씩한 아이가 "괜찮아, 치료 잘 받으면 되잖아. 암 그까짓 것 빨리 이겨내고, 빨리 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말대로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항암제를 맞았습니다. 항암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는 수혈 중 혈액이 잡히지 않아 중환자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기계와 약물을 주렁주렁 매달고 지현이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혼미한 정신에도 간간히 정신이 돌아오면 "엄마 밥은 먹었어?" 묻고는,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좀 자고 오라며 저를 챙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0일을 보내고, 지현이는 웃으며 일반병실로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로 힘들었지만, 아이가 아프고 나서 아이와 많은 걸 같이 했습니다. 덩치 큰 두 사람이 좁은 침대에 살을 맞대고 팔베개 해가면서, 아플 땀 등도 쓸어주고 토닥여 줘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가 아프고 나서 비로소 하게 됐습니다. 11살에 아팠던 지현이가 벌써 15살이 되었습니다. 지현이의 3년이라는 그 치료기간이 제겐 진정 지현이 엄마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지현이와 제게 겨울 뉘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뽀뽀 얼어붙은 세상이 조금씩 스며드는 봄기운에 녹아내리듯 소아암으로 인해 힘든 치료를 견뎌내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따스한 햇살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 지현이는 2009년 12월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받고 2011년 1월 치료종결 하였습니다. *

Over the Rainbow, 꿈은 이루어집니다!!



장은지

1993년생
2005년 뇌장암 진단
2008년 치료종결
2013년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입학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신입생이 되는 장은지라고 합니다.

중학교에 입학한지 3일 만에 친구랑 장난치다 배를 맞았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후, 바로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저의 병원생활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부모님께서 제 병이 뇌장암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을 듣고도 저는 무척 담담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린 마음에 부모님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병원에서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힘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은 곳이 많아 잦은 외래진료와 여러 가지 약 복용이 일상이 되어, 늘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슬프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병원생활은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많이 지루했습니다. 컴퓨터만 하자니 머리가 아파서 오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좋아하던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사랑의집에서 자원봉사 언니, 선생님들과 공작교실을 하면서 만들기에 새롭게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후 공예 관련 책들도 많이 사보고, 만들기도 하면서 지루한 병원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2년 만에 복학했을 때,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니, 담임선생님과 한 살 어린 친구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고 도와주어서 힘들지 않게 적응했습니다. 학교공부와 함께 사이버 학교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일도 있었답니다. 그 중 하나가 머리카락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처음 복학할 때는 민머리여서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발색이 갈색이라 선생님들과 선배들한테 염색했다고 오해를 사기도 했고, 머리가 조금 난 후, 가발을 쓰니 여름에는 땀도 나고 상당히 더워 애를 먹었어요. 1년 반 정도 흘렀을 때는 결국 가발을 벗고 조금 기른 머리를 묶고 다녔어요. 머리가 자랐을 때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로 나와 선생님들을 파마했다는 오해도 받았었어요. 과목마다 선생님들께 머리카락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하는 마음고생도 있었지요.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 입학을 앞둔 지금, 병원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제게는 무지개 색으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감정들을 느끼고 경험하며 한층 더 성숙해졌고, 이제 이렇게 투병했다는 사실이 지금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긍정의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치료를 하고 있을 아이들에게 지금 겪는 아픈 시간들을 다 이겨낸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자신이 꿈꾸는 모든 일을 자신감과 희망으로 이룰 것이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보았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동안 제 그림 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또 다른 곳에서 우연히, 혹은 운명적으로 만나요.
 잘 지내요~

글·그림 소복이.
 sobogi.net

*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소복이 작가님의 작품 게재가 종결됩니다.
 오랫동안 재능기부를 해 준 소복이님께 감사드립니다. *

치열한 도전! 그리고 나를 찾아 떠난 여행

소아암을 겪은 20대 청년들의 스토리

"우리 지구별 꿈 도전단이라는 거 같이 해볼래?"

2012년 11월, 재단의 자기성장 프로젝트에서 만난 미래언니(이미래, 24살 완치자)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해 주는 '지구별 꿈 도전단(한국장학재단 주최, 우리은행 후원)'에 지원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언니는 완치자 팀을 꾸려보자고 했습니다. 저(이호연, 22살 완치자)는 부푼 기대와 도전의식으로 언니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주언니(김현주, 23살 완치자)의 합류로 완벽한 드림팀이 만들어졌습니다.

2달간의 치열하고 너무나 행복했던 우리의 성장기.

성장통. 그 순간만큼은 온몸이 쭈시고 힘들지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성장통! 우리의 도전도 성장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구별 꿈 도전단은 20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1차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숫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모두 마음을 졸였지만 기죽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1차 서류심사는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대 10팀만 선발하는 200대 1의 최종 경쟁률을 뚫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3차 면접심사까지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마치며, 도전 준비과정을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어렵고 피말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런 도전을 하는지,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야만 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웠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유레카!!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소아암이라는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 앞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삶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흔적을 갖고 스스로 살아가야 하며, 그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도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아암 어린이들과 완치자들이 자신의 소아암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 그 시작점이 되고 싶습니다.



Can Teen과 만나다!

캔틴(CanTeen)은 뉴질랜드 소아암 서바이버(Survivor)단체입니다. 우리가 '지구별 꿈 도전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싶었던 캔틴은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치자와 소아암 청소년, 그리고 전문가 스태프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소아암 청소년과 완치자의 권리 신장, 인식개선 캠페인, 워크샵, 모금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바이버, 즉 완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여러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스타쉽(Starship)이라는 오클랜드 병원 내의 전문 어린이병동을 탐방하였습니다. 병동 내에서 캔틴의 활동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다른 병동 환경과 시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2세 이하의 어린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NGO단체인 CCF(Childhood Cancer Foundation)를 방문해서 그곳의 활동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좁은 생각과 시야를 넘어 얼마나 큰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그 자리에 우리만이 아닌 현재 용감하게 투병 중인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아암 어린이들과 완치자들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소아암이 더 이상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닌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치자 이호연 드림



소아암 정보, 이제 스마트폰에서 만나세요!

재단에서는 암 치료과정과 이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의 이해와 대처를 돕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책자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정보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소아암 정보'를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본 앱을 통해서 진단명별 정보 15종과 간병을 위한 도움정보 6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암 정보' 다운로드 방법

아이폰 사용자

앱스토어에서 '소아암 정보' 검색

안드로이드 사용자

구글 플레이에서 '소아암 정보' 검색



아이폰 사용자



안드로이드 사용자

신규 소책자 '유전용혈빈혈' 발간



유전용혈빈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대한혈액학회 유전용혈빈혈연구회에서 집필한 본 책자는 유전용혈빈혈의 총론과 세 가지 원인인 적혈구막질환, 혈색소질환과 적혈구효소질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1770. 12. 17 ~ 1827. 3. 26

역경은 평범한 사람이나 부자, 천재들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싸워보지도 않은 채 역경에 무릎을 꿇고, 또 어떤 이들은 최선을 다해 역경을 이겨내려 노력합니다.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이들에게도 역경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음악가 중 한 명인 베토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은 1770년 12월, 독일 본에서 태어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격한 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던 베토벤은 7살의 나이에 첫 피아노 리사이틀을 하면서 모짜르트와 맞먹는 신동으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베토벤은 어린 나이에 알콜중독자인 아버지와 결핵을 앓던 동생 등, 온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갖고, 탐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다른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이명으로 고통 받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가에게 끝없는 귀울림은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곡과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이 청각을 잃어가며 혼신을 다해 작곡한 9번째 심포니를 연주하고 난 후, 천둥 같은 박수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 슬피 울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는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마지막 십 년 동안, 그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주옥같은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신분의 차별로 사랑하는 여인과 맺어질 희망마저도 포기해야 했던 베토벤... 그의 운명



은 끝없는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남들에게는 괴팍하다고 불릴 정도의 강인한 성품으로 하나씩 이겨나갔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는 포용력과 이겨내려는 용기를 갖고 노력한다면 '역경'이라는 말도 '도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 일러스트레이터 이지희 작가의 재능기부로 2013년 봄호부터 '역경을 이겨낸 예술가' 칼럼이 게재됩니다. *

한사랑의집에서는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치료종결, 그리고 시상식



해마다 연말이면 들려오는 훈훈한 시상식 소식. 그 중에서 최고의 시상식은 어떤 걸까요? 치료종결파티에서는 소아암 치료를

씨씩하게 받고, 치료를 종결한 아이들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시상식 순서가 있습니다. 힘든 치료 후에 받은 빛나는 메달! 그 어떤 메달보다 값진 메달을 선사한 이 시상식이 단연 최고가 아닐까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형?



2013년에도 병동에 산타가 출현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요하게 진짜 산타 할아버지인지 검증합니다. 수염의 진위 여부, 얼굴의 노안 정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누구인가?' 계속 묻습니다. 빨간 옷 속의 실체는 젊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형이 아닌, 친구들처럼 소아암 치료를 마치고 완치된 형이었습니다. 완치의 희망을 배달해 준 완치자 형 덕분에 두 배의 즐거움과 희망이 있었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 상기 프로그램은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1318 한사랑 1박2일



봄방학 야심찬 프로젝트 '한사랑 1박2일'이 올해도 진행되었습니다. 또래간 만남이 필요한 소아암 청소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도시락 복불복, 대구스포츠키념관 체험, 야식대결, 마니또 퀴즈 등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함께함의 소중함을 경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2013년 봄! 봄! 봄! 소식

봄을 알리는 두 명의 완치자가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을 찾아왔습니다. 10년 전쯤 치료를 마치고 대학생이 된 완치자는 종종 힘들게 지내고 있을 소아암 아이들을 생각했고,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에 머물며 치료를 마친 완치자가 정기검사 후 잠깐 들렸습니다. 짧게 왔지만, 치료 중인 보호자들에게 자신의 치료경험과 지금의 생활을 이야기 하며, 치료 중인 아이들에게 완치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땅속에 새싹이 움트며 봄을 알리는 것처럼 완치자들의 방문에 마음 속 희망 새싹들도 움트고 있습니다.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슈가 케이크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말 모형이 없어진 슈가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처럼 말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소 같은 말, 강아지 같은 말들의 탄생했습니다.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말은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만들며, 힘찬 말들의 질주처럼 '건강회복'을 향해 질주하는 새해 되길 소망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서울마주협회 후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크리스마스에는?

소원트리



크리스마스 소원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선물을 달라는 소원, 가족과 함께 여행가게 해달라는 소원, 그리고 단연코 으뜸 소원인 빨리 낫게 해달라는 소원을 적어 트리에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아픈 치료에도 씩씩함 잃지 않았으니, 그 소원 다 이뤄질 것입니다.

* 본 프로그램은 (주)파리크라상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초콜릿트리

소아암 어린이 병동에 달콤한 초콜릿이 한가득 펼쳐 집니다. 잠시 짝사랑한 병원생활을 잊고 달콤한 초콜릿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쁜 초콜릿트리는 그동안 함께 해준 가족에게, 그리고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신한은행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크리스마스 그릇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넓은 접시에 산타도 그리고, 루돌프도 그리고, 내 이름도 적어서, 멋진 접시 완성! 내가 만든 접시에 담긴 크리스마스 음식,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 본 프로그램은 리버트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사진도 찍고, 민속놀이도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핸드 마사지와 네일아트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미도 있고, 쉼도 있었던 복 많은 설날이었지만, 다 음 설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하나은행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KCLF

지원 결정
환아

2012. 12. ~ 2013. 2.

이식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유석(악성림프종/서울아산병원) 1,500만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주)

임서진(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6,079,870원

신한금융지주회사

곽호경(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800만원
김수현(관코니빈혈/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1,500만원
김태양(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1,000만원

(주)드림팩토리클럽

조영희(중증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1,500만원

(주)이베코리아 옥션

조수정(수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 2,000만원
최승범(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한승현(상세불명의 무형성빈혈/서울아산병원)

이식비기금

김광래(황문근육종/삼성서울병원) 1,000만원

재활치료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준원(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300만원

삼성물산(주)

정수현(유양육종/경북대학교병원) 200만원
이현위(급성림프모구백혈병/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300만원

삼성SDS

박도현(생식세포종/영남대학교의료원) 300만원

배우 송중기

박소현(수모세포종/동아대학교의료원) 600만원

울산항만공사

최준환(수모세포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300만원

(주)드림팩토리클럽

김형근(종격동의 악성신생물/한양대학교병원) 700만원
노현용(골육종/경북대학교병원) 600만원

Daum 희망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승준(뇌종양/동아대학교의료원) 7,015,572원

재활치료비 기금

하승준(뇌종양/동아대학교의료원) 984,428원

치료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정환(수모세포종/국립암센터) 800만원
김지선(혈구탐식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주)

김혜진(생식세포종/삼성서울병원) 800만원
곽우진(생식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주)

곽호경(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700만원

삼성물산(주)

김시우(부신피질암/전북대학교병원) 140만원
신주은(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800만원
전유민(시신경교종/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송지훈(급성중표형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8,098,527원

삼성SDS

윤지원(중증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 3,567,550원

신한금융지주회사

이동준(혈구탐식세포종/삼성서울병원) 10,989,940원
곽진우(혈구탐식세포종/서울성모병원) 600만원

우정사업본부

김지영(골육종/경북대학교병원) 300만원

울산항만공사

허준명(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500만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

김지선(혈구탐식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3,000만원

정영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현진(골육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100만원

한국남동발전(주)

김재욱(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200만원

한국증권금융,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예린(혈구탐식세포종/서울아산병원) 4,322,050원

홍명보장학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유민(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 931,210원

(주)드림팩토리클럽

이영주(황문근육종/삼성서울병원) 600만원
서준영(골육종/국립암센터) 500만원

(주)맥텍

박진우(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 2,940,180원
박정용(호지킨림프종/서울성모병원) 1,000만원

(주)아놀자

박지연(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 1,919,440원

(주)엔에스홈핑

구예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영남대학교의료원) 1,300만원

(주)이베코리아 옥션

조수정(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2,000만원
이용성(골육종/국립암센터)
김경민(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주)토탈소프트뱅크

송지훈(급성중표형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700만원

KB금융지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유진(늑막페아세포종/서울아산병원) 500만원
최예지(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최충기(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300만원
염승훈(골육종/국립암센터) 800만원

KT&G,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유석(약성림프종/서울아산병원) 1,000만원
 유예린(혈구탐식성조직구증식증/서울아산병원) 876,450원
 정홍찬(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700만원

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김성훈(약성림프종/세브란스병원) 700만원
 이은선(유잉육종/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치료비기금

유예린(혈구탐식성조직구증식증/서울아산병원) 1,594,460원

간접치료비

일시 간접치료비

김유하 후원자

이관용(랑게르한스조직구증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100만원

동화홀딩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손채희(황문근육종/서울성모병원) 430만원

리바트

윤지원(중증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 100만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각 100만원

조정환(수모세포종/국립암센터)
 김혜진(생식세포종/삼성서울병원)

배우 송승기

유예린(혈구탐식성조직구증식증/서울아산병원) 300만원

삼성물산(주)

박소미(랑게르한스조직구증식증/서울대학교병원) 100만원
 신주은(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100만원
 전유민(시신경교종/삼성서울병원) 100만원
 김시우(부신피질암/전북대학교병원) 140만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

김지선(혈구탐식성조직구증식증/서울대학교병원) 2,359,335원

정영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현진(골육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300만원

한전KPS 주식회사

박승준(시신경교종/해운대백병원) 1,347,000원

(주)모두투어네트웍

김유민(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 100만원

(주)엔에스홀딩

홍은소(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4,243,020원

(주)이노션

각 100만원
 조수정(수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
 이민지(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박유림(황문근육종/경북대학교병원)
 서준영(골육종/국립암센터)
 염승훈(골육종/국립암센터)

2PM 김민준 팬클럽 With Jun. K 각 150만원

김민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백병원)
 김민준(수모세포종/국립암센터)

간접치료비기금 및 익명후원자

곽호경(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100만원

정기 간접치료비(신규)

기업은행노동조합

김수환(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
 박정용(호지킨림프종/서울성모병원)
 손준일(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송지훈(급성이중표현형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신재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이영주(황문근육종/삼성서울병원)
 장석진(급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최영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대청교회

김장휘(급성골수성백혈병/해운대백병원)

디시인사이드 유아인갤러리

김다예(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양진의료재단

황희정(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전부건서지혜

이하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한전KPS 주식회사

김가영(재생불량빈혈/동산의료원)

(주)태진인터내셔널

김민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이마나(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이준희(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주)호성 연양공장

김현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SK이노베이션

기동욱(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익명 후원자

이광성(골육종/경북대학교병원)

가발

하이모

김예현(뇌종양/해운대백병원)
 김푸름(골육종/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현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하윤미(버킷림프종/충북대학교병원)
 홍은소(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KB국민은행

서홍비(호지킨림프종/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임성수(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정다민(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조수정(뇌종양/서울아산병원)
 최가원(간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NH농협카드

김민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서해창(골육종/원자력병원)
 유희은(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최수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 KCLF

신규
후원자
소식

2012. 12. ~ 2013. 2.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성근 강재화 강철웅 강하라 고권석 공 준 권지는 김갑수 김경숙 김국주 김노현 김대기 김동원 김명호 김민주 김보미 김선길 김성식 김성운 김수현 김시열 김양희 김연희 김예원 김용수 김유리 김은수 김은범 김은하 김은희 김정원 김정희 김제하 김종안 김지현 김채운 김태석 김태우 김현동 김현열 김현지 김현진 남광석 류정미 문배훈 박결동 박근영 박상동 박상수 박수혜 박영섭 박은영 박정현 박태원 박형진 박희신 배지은 백미선 서운옥 서주석 서혜영 선병옥 설소연 손성희 신기혜 신동근 신문철 신자영 신채연 심규용 심재권 안수종 안수진 양동화 양홍열 엄혜민 염다빈 염다운 오상열 오승일 오정수 오지훈 우명선 유철중 유한준 유혜경 유현재 윤 관 윤대성 윤서현 윤선아 이정진 이동훈 이서연 이서희 이선아 이상수 이수진 이신영 이예서 이육규 이은채 이은희 이자현 이재호 이재훈 이정금 이주은 이주희 이차우 이철희 이하은 이현경 이현정 이해련 이효석 임삼미 임은진 임종실 임지연 임진희 임희순 장용황 장유진 전나영 전은재 정두영 정민혁 정수영 정승헌 정애연 정연홍 정영환 정영후 정유미 정재훈 정지형 정희정 조슬기 조영숙 조영재 조요섭 조윤희 조희준 주현진 자유미 진재봉 차정화 최가영 최 별 최병구 최애리 최철호 하현우 한윤정 허예은 홍승민 황경화 황보경

일시후원

강영순 광경문 구재본 권순일 김다영 김민정 김삼열 김성도 김연진 김영규 김영빈1 김영빈2 김우현 김장수 김재홍 김정동 김지선 김진태 김태용 김희문 남향우 노경부 단희희 류근하 민경병 박광민 박수안 박재돈 박지수 배정민 손정환 송세희 신동훈 신중현 영 이 원경남 유미정 유연비 이규태 이상한 이상훈 이순주 이은영(레아) 이정민 이정우 이준하 이현지 임창영 임현구 조나영 조민성 조지연 조태현 주상훈 차계순 최돈석 최은숙 최재익 계산고2학년8반 교회 디딤 레인보우프로젝트 부산영도유체국 용인휴게소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이문초등학교1학년3반 주석회사헬로월드

후원물품

김창호 쌀 대구우체국 김장, 쌀 박수혜가족 굴 삼성물산품지락동호회 프로그램비, 설선물세트 오태현 음료수 이현우 음료수 장욱찬 부식류 장재울 차류 전남만수무강 한복대여 전남대학교병원 쌀 제주신라호텔 프로그램비 한영창 책, 음료수 EBS 티켓

헌혈증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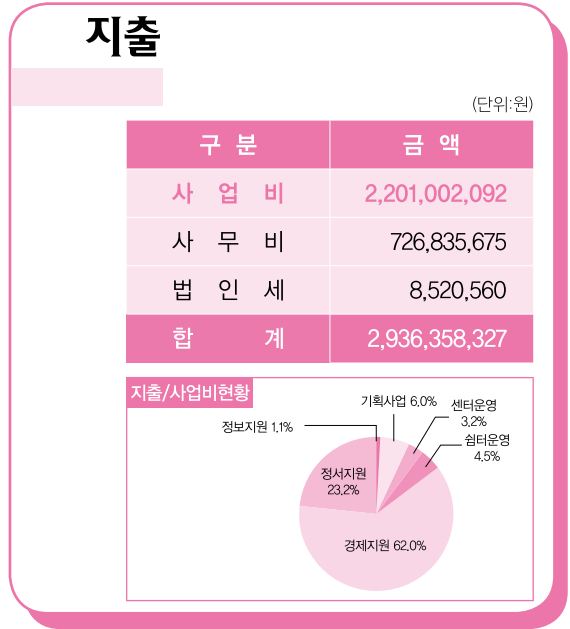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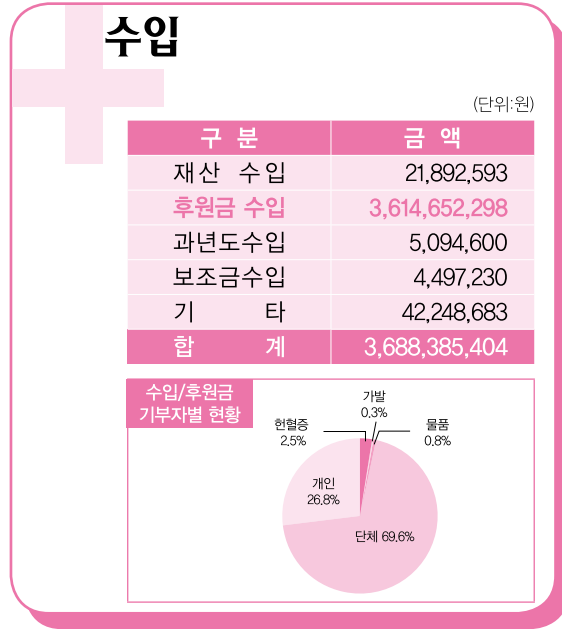
강은혜(300) 구분용(20) 김명은(8) 김민(2) 김수엽(3) 김응재(17) 김진용(2) 민정현(8) 박기식(10) 박소영(10) 박은지(20) 박지욱(2) 서태영,김대현(8) 송지영(3) 유정우(5) 유정준(1) 이현아(23) 장현석(2) 장현석(1) 정지윤(6) 조미현(18) 조형목(20) 지상윤(3) 최종수(5) 한수정(3) 황민우(40) 55사단 신병교육대대(1,004) KTC(100) season7사랑의물려산타대작전(75) 경민대학(600) 금호석유화학(425) 대한송유관공사(140) 디시인사이드유아인갤러리(19) 미래에셋생명(150) 벼룩시장(682) 보령중보재단(106) 상지대학교사회봉사단(92) 용준형&스포츠라이트(89) 인보건설(52) 인천문예전문학교(80) 주식회사감마누(8) 진성고등학교(61) 천안공업고등학교(133) 태흥시네마(357) 파리바게뜨(100) 한국도로공사(10,000) 한국전력공사경북지사(7) 한국해양수산연수원(300) 한화투자증권(141) 현대엘리베이터(130)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 체 국 : 012989-01-003327
농 협 : 029-01-176943 우리은행 : 112-04-112571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012년 사업보고



▶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원)

| 구분 | 사업명 | 사업실적 | 금액 | 구분 | 사업명 | 사업실적 | 금액 | |
|--------|--------------|--------------|-------------|---------|---------------|----------------|-------------|-----------|
| 경제적 지원 | 이식비지원 | 37명 | 369,472,660 | 정서적 지원 | 심리치료 | 399명 | 92,213,084 | |
| | 치료비지원 | 168건 | 641,641,826 | | 사별가족지원 | 33명 | 2,994,240 | |
| | 재활치료비지원 | 29명 | 56,613,450 | | 교육자료지원 | 10종/13,000부 발행 | 21,170,780 | |
| | 일시간접치료비지원 | 59명 | 79,035,053 | | 소아암교육 | 1,672명* | 2,167,685 | |
| | 정기간접치료비지원 | 120명 | 152,381,220 | | 보호자교육 | 14명* | 130,500 | |
| 정서적 지원 | 현찰증서지원 | 16,200매 | 65,035,980 | 미니도서관 | 365명* | 406,650 | | |
| | 학습지원 | 46명 | 27,000,000 | 소아암교실 | 방문 수 3,194건 | 1,440,000 | | |
| | 가발지원 | 38명 | 30,470,000 | 연구사업 | 연구지원 | 1건 | 864,780 | |
| | 프로그램 | 1,169명* | 5,800,580 | 기 획 사 업 | 후원자관리 | 18,035명 | 61,871,717 | |
| | 칭찬통장지원 | 2,000부 발행 | 14,059,100 | | 후원개발 | - | 24,547,595 | |
| | 가족행사 | 2,124명* | 139,118,200 | | 홍보사업 | - | 38,952,576 | |
| | 가족관계강화 | 178명 | 20,465,420 | | 유관단체관리 | - | 663,970 | |
| | 형제캠프 | 30명 | 11,301,865 | | 자원봉사자관리 | - | 448,090 | |
| | 주거환경개선 | 323명 | 30,000,000 | | 교육훈련 | - | 5,034,461 | |
| | 체력증진지원 | 156명 | 31,410,000 | | 센터운영 | 제수수료 | 5개소/23,035명 | 5,043,540 |
| | 사진전 | 관람객 수 1,270명 | 26,040,730 | 제세공과 | | 45,440,606 | | |
| | 물품지원 | - | 20,976,000 | 장비유지비 | | 45,143,444 | | |
| | 완치자 장학금지원 | 11명 | 33,665,500 | 비품구입 | | 2,764,110 | | |
| | 완치자 자기성장프로그램 | 12명 | 6,821,490 | 센터운영 | 제수수료 | 1개소/1,325명 | 57,552,000 | |
| | 치료종결자지원 | 18개 병원/725명 | 18,162,000 | | 제세공과 | | 5,052,930 | |
| | 완치자네트워크 | 17명 | 644,670 | | 장비유지비 | | 4,369,520 | |
| | | | | | 비품구입 | | 2,614,070 | |
| | 사업비 총계 | | | | 2,201,002,092 | | | |

*센터 이용인원에 일부 포함

KCLF 희망소식

호수의나라 수오미



2011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활동을 펼치는 호수의나라 수오미가 올해에도 후원금과 물티슈를 함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국아이엠에스헬스



한국아이엠에스헬스 임직원은 12월 18일, 임직원 참여 행사를 통해 모은 후원금을 재단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12월 27일, 사내 및 휴게소 고객 대상 '헌혈증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 1만장과 소아암 어린이 전문지원센터 '나눔' 건립 후원금 1억 원을 재단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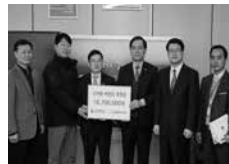


종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룹인 이노션은 2011년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옵스

부산 9개점, 경기도 1개점, 총 10개의 매장을 가진 베이커리 OPS에서 연말 카드 판매수익 및 임직원 분들의 모금액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에서 임직원 분들이 모아준 모금액에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함께 기부하여,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첫 나눔을 해주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임직원이 함께 모은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은 2010년부터 재단과 협약을 맺고, 치료비, 센터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도 치료비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주)태진인터내셔널



2005년부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태진인터내셔널 루이까포즈에서 치료비를 전달 해주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아암 어린이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메리츠화재에서는 2013년에도 치료비와 정서적 지원 사업을 후원합니다.

스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디시인사이드 '유아인 갤러리'에서는 2010년부터 꾸준히 매월 2명의 소아암 어린이에게 간접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때마다 마음을 담은 선물과 헌혈증으로 야심있는 격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 2pm 준케이(김민준) 팬연합 'with Jun. k'에서는 준케이(김민준)군의 생일을 맞아 후원금 300만원과 후원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선물을 함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 비스트 용준형 팬클럽인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용준형군의 생일을 맞아 헌혈증 89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정준영 갤러리'에서는 가수 정준영 군의 생일을 맞아 해피빈 롱 13,221개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013 우정사업본부 위탁공익사업 선정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한사랑의집을 통한 소아암 환자 가족 통합지원사업'을 2013년 위탁공익사업으로 선정.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주)삼성물산



(주)삼성물산에서는 다양한 모금캠페인을 통해 총 42,501, 448원의 후원금을 치료비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동국제약 송년음악회

동국제약은 2012년 12월, 송년음악회에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초대하여 멋진 음악을 선물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소아암 어린이 가족 봄나들이 사업도 후원하였습니다.

기금전달

맥택(치료비 후원), 하나은행(설날 프로그램 지원), 신한은행(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한국감정평가협회(쉼터 후원), 한전KPS 주식회사(간접치료비 후원), 피피디(치료비 후원), 보령제약그룹(노랑리본캠페인) 인보건설(헌혈증, 간접치료비 후원), 송내 사랑의교회 하늘가족초동부(쉼터 후원), 파주 동화나라 유치원(쉼터 후원)

미래에셋생명



후원해 주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에서는 FC분들이 모아 준 소아암 어린이 돕기 치료비 및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지정기탁을 통해 항균키트 지원사업을

월드비트 비나리 '노랑리본데이'

소원성취콘서트 월드비트 비나리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공연 수익금 전액을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공연에는 영화 '26년'의 배우 배우빈, 진구님이 함께해 더 특별한 노랑리본데이가 되었습니다. *공연문의: 들소리 02)744-6800

현대엘리베이터



12월 21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임직원 헌혈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과 완치자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서울마주협회와 정영식 마주



치료비 지원, 소아암 어린이 전문 지원센터 '나눔' 건립기금을 후원한 서울마주협회와 정영식 마주님이 이번에는 경주마 인형 '당대불패'와 '백광'의 판매금액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주)모두투어네트워크



(주)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는 '사랑의 모자뜨기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모자&목도리 93개와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에이스종합건설



에이스종합건설은 2011년에 이어 직원 급여 중 일부를 적립하여, 치료비와 소아암 어린이 전문 지원센터 '나눔' 건립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대한송유관공사는 노랑리본 캠페인과 함께 임직원 헌혈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과 간접치료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제43기 서울바이트 자선공연

사법연수원 제43기의 락밴드 Soul Bite는 12월 25일, 연말자선공연을 통해 모금한 4,113,525원을 치료비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모바일 서비스

하나대투증권은 스마트하나HT 모바일 서비스를 런칭하고, 다운 및 로그인 1회 시 적립금과 함께 일정 부분의 거래 수수료를 적립, 소아암 어린이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태던위터파크 헌혈증 나눔캠페인



복합 문화 리조트인 태던위터파크 (충청남도 천안 소재)에서는 입장객을 대상으로 소아암 어린이 돕기 헌혈증 나눔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태던위터파크 헌혈증 나눔캠페인 : 헌혈증 기부 시, 워터파크 50% 할인, 구명조끼 대여비 무료

후원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만남의 자리

'즐기는 나눔, 행복한 인생'



12월 8일,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준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 임명 · 종결식



2012년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를 수행해 준 이예나, 김보미 어린이 가족에 이어, 2013년에는 김건우, 조동현, 한유빈 어린이 가족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소아암 치료과정과 병원생활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알려줄 '소아암 어린이 온라인 홍보대사'로 김건우 어린이가 함께 선발되어 더욱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는 일반 대중에게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13회 소아암 어린이 미술치료 작품 전시회
소박한 동행, 세번째 이야기

- * 일시: 2013년 5월 22일(수) ~ 28일(화)
- * 장소: 경인미술관 제5전시관 (서울 종로구 관훈동 소재)
- * 문의: 02)766-7671

2013년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서울, 경인, 강원, 충청지역

- * 일시: 2013년 6월 7일(금) ~ 8일(토)
- * 장소: 헤이리마을 (경기 파주시 소재)
- * 문의: 02)745-7671

호남지역

- * 일시: 2013년 6월 8일(토) ~ 9일(일)
- * 장소: 중흥골드스파&리조트 (전남 나주시 소재)
- * 문의: 061)375-7671

영남지역

10월중 진행될 예정으로 일시 및 장소는 여름호에 게재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완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도 여러분과 꼭 같은 완치자랍니다
 다! ㅎㅎ 혹시
 치료중에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
 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자! 이제 우리가 응원할 차례입니다!
 - 윤서영 -

완치가 되었습니다
 치료과정은 힘들었지만
 자신을 이기고 힘든 길을 걷고나
 니, 아주 좋은 길이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좋은 길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이아인-

완전히 나아뵈네요
 치료를 급나 잘 받아서
 자신감 충만합니다요
 -한동주-

완전 소중한 아이들
 치료 잘 받으시고
 자! 우리의 꿈을 향해 파이팅!
 -김솔-

완치자는
 치료란 고치를 벗고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니는
 나비다
 -조명준-

2012 완치자 삼행시 공모전 수상작 中

2013년 봄호는 *b KB 국민은행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인 / 오연천 편집인 / 서선원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524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7 인설빌딩 4층 전화 / 02)766-7671(대) 팩스 / 02)766-7674
 www.kclf.org cancer@kclf.org